

# 제 1 교시 국 어

1. 공감하며 반응하는 대화로 ㉠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아리에서 배운 대로만 하는데 그게 어려워?
- ② 그럼 지금이라도 그만둬! 괜히 피해 주지 말고.
- ③ 거봐, 그럴 줄 알았다. 어쩐지 연습을 안 하더라.
- ④ 그렇구나! 연주회를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구나.

2.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논제 : 학교 내 복도에 무인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자.**  
 찬성 측 : 교내의 모든 복도에 무인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심하게 되어 학교 폭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 측 : 저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교내 복도 무인 방범 카메라 설치에 반대합니다. 학교의 모든 복도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빠짐없이 촬영된다면 ㉠  
 :

- ①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 ②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 ③ 유지 및 보수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④ 교내에 외부인 출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3. 다음 <표준 발음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 표준 발음법 ■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비]으로 발음한다.

- ① 낮[난]      ② 밖[박]      ③ 옷[웃]      ④ 앞[압]

4.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것은?

- ① 오늘은 어느 집에서 모이나요?
- ② 모든 학생은 강당으로 모여 주세요.
- ③ 언제나 시작할 때의 첫 마음을 잊지 말자.
- ④ 엄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다.

5. ㉠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엄마가 아들에게) 당근은 가늘고 길게 채 썰어 줘.  
 (요리사들의 대화) 당근은 ㉠ 썰리엔\*으로 썰어 주세요!  
 \*썰리엔: 채소나 고기를 길고 가는 모양으로 채 썰는 것을 가리키는 요리 용어.

- ① 고유어를 사용하여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 ②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해
- ③ 전문어를 사용하여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 ④ 유행어를 사용하여 문화적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6. 밑줄 친 문장 성분이 ㉠에 해당하는 것은?

문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 보어, 서술어가 있다.

- ① 아침에 까치가 울었다.
- ② 내 동생이 반장이 되었다.
- ③ 형이 강가에서 산책을 한다.
- ④ 여름에는 수박을 많이 먹는다.

7.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훈민정음의 자음 글자 ‘ㄱ, ㄴ, ㄷ, ㅌ, ㄹ’은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기본 글자이다. ㉠ 이 기본 글자에 가획의 원리에 따라 획을 더하여 글자를 추가로 만들었다.

- ① ㅋ      ② ㅌ      ③ ㄷ      ④ ㅈ

8. 다음 개요에서 통일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지진의 피해와 대처 방안
처음	지진의 개념
중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 피해 실태</li> <li>- 지진과 태풍의 원인 비교 ..... ①</li> <li>- 각국의 지진 피해 사례 ..... ②</li> <li>•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li> <li>- 지진 발생 시 장소에 따른 대피 방법 ..... ③</li> <li>- 지진 강도에 따른 행동 요령 ..... ④</li> </ul>
끝	당부의 말

9. (가)를 활용하여 표현하기에 적절한 것을 (나)의 ㉠~㉣에서 고른 것은?

(가) **속담 : 울며 겨자 먹기**  
 (나) 어제 아버지께서 등산을 가자고 하셨다. ㉠ 가기 싫었지만 억지로 따라갔다. 급하게 올라가려니 너무 힘들었다. 아버지께서 ㉡ 힘들면 내려가자고 하셨다. 그때는 ㉢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산 정상에 도착하니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 올라갈 때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 ① ㉠      ② ㉡      ③ ㉢      ④ ㉣

10. ㉠~㉢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묘는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이다. ㉠ 유네스코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종묘는 조선 시대에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공간이다. ㉡ 조상은 추모하는 장소이므로 화려한 단청 같은 장식은 없다. 모든 건축물이 단순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 드러내고 있어서 방문한 사람들도 ㉣ 경박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 ① ㉠: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② ㉡: 조사의 쓰임이 맞지 않으므로 '조상을'로 바꾼다.
- ③ ㉢: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 '드러내고'로 바꾼다.
- ④ ㉣: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경건함'으로 바꾼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수 있지?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히한 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 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히히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노새 가족……. 노새 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 나와 매달렸다.

“이걸 어찌우, 글썽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 가게 물건들을 박살을 냈대요. 이걸 어찌지.”

“노새는 찾았대?”

“찾고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간데온데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유.”

오늘 낮에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라나 하는 ㉢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넣어야겠다고 이르고 갔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데룩데룩 굴리고 서 있더니 히 하고 코를 풀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스펙스적 문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아버지’ 하고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 자동차가 뺑뺑거리고, 자전거가 썽썽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러야지 지금이 어느 땐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 최일남, 「노새 두 마리」 -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시각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②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③ 배경 묘사를 통해 향토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등장인물 간 갈등 해소를 나타내고 있다.

1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 ② 노새를 찾으러 나갔던 형이 다쳤기 때문에
- ③ 노새가 난동을 부려 순경이 찾아왔기 때문에
- ④ 경찰서에서 노새를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13. ㉡~㉣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화·도시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삶을 비유하는 소재

① ㉡                      ② ㉢                      ③ ㉣                      ④ ㉣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나는 나룻배  
[A] 당신은 행인.

당신은 ㉠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낚아 잡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묻고 답하는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첫 연을 마지막 연에서 다시 제시하고 있다.
  - ④ ‘-니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살리고 있다.

15. ㉠~㉣ 중 다음 밑줄 친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배경을 고려할 때, 이 작품에는 조국 독립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16. [A]로 볼 때, ‘당신’에 대한 ‘나’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내하는 태도
- ② 도전하는 태도
- ③ 희생하는 태도
- ④ 헌신하는 태도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께 여쭙어라. 먼 데 있는 걸인이 마침 잔치를 만났으니 고기하고 술이나 좀 얻어 먹자고 여쭙어라.”

사령 하나가 뛰어나와 등을 밀쳐 낸다.

“어느 양반인데 이리 시끄럽소. 사또께서 거지는 들이지도 말라고 했으니 말도 내지 말고 나가시오.”

운봉 수령이 그 거동을 지켜보다가 무슨 짐작이 있었는지 변 사또에게 청했다.

“㉠ 저 걸인이 옷차림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저 끝자리에 앉히고 술이나 한잔 먹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운봉 생각대로 하지요마는…….”

마지못해 입맛을 다시며 허락을 한다. ㉡ 어사또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랏줄은 ㉢ 내가 저라.’

되뇌이며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운봉 수령이 사령을 부른다.

“㉣ 저 양반 드시라고 해라.”

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마루 위의 모든 수령이 다과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 느린 가락을 즐기는데,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귀통이가 떨어진 개다리소반에 닥나무 젓가락, 콩나물에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이 놓였구나. 상을 발로 탁 차 던지며 운봉의 갈비를 슬쩍 집어 들고,

“갈비 한 대 먹읍시다.”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런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으니 운자를 따라 시 한 수씩 지어 보면 어떻겠소?”

“그 말이 옳다.”

다들 찬성을 했다. 운봉이 먼저 운을 낼 때 ‘높을 고(高) 자, 기름 고(膏) 자 두 자를 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지었다. 앞사람이 끝나면 뒷사람이 받아 시를 지을 때 어사또 끼어들어 하는 말이,

“이 걸인도 어려서 글을 좀 읽었는데, 좋은 잔치를 맞아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그냥 가기가 염치가 아니니 한 수 하겠소이다.”

운봉이 반갑게 듣고 붓과 벼루를 내주니, 백성들의 사정과 변 사또의 정체를 생각하여 시 한 편을 써 내려갔다.

[A] 금 술잔의 좋은 술은 수많은 사람의 피요  
 옥쟁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 눈물도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도 높구나

이렇게 시를 지어 보이니 술에 취한 변 사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글을 받아 본 운봉은 속으로

‘아뿔싸! 일 났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 작자 미상, 『춘향전』 -

17.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 ① ‘사령’은 ‘어사또’를 잔치에 몰래 들여보냈다.
  - ② ‘운봉’은 ‘어사또’의 시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였다.
  - ③ ‘어사또’는 자신의 지조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④ ‘변 사또’는 ‘어사또’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시를 지었다.
18. ㉠~㉣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19. [A]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유를 통해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 ② 후렴구를 활용하여 흥을 돋우고 있다.
  - ③ 과거에 즐거웠던 한때를 떠올리게 한다.
  - ④ 헤어진 인물들이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겨울만 되면 정전기가 기승을 부린다. ㉠ 정전기란 전하<sup>1)</sup>가 정지 상태로 있어 그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전기 및 그로 인한 전기 현상을 말한다.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정전기는 건조할 때 잘 ㉡ 생긴다.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의 수분이 전하가 흘러갈 수 있는 도체 역할을 하여 정전기가 수시로 방전된다. 따라서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도 잘 생기지 않는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보다는 적게 흘리는 사람에게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것도 같은 까닭에서이다.

또한 정전기는 전자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마찰에 의해 잘 생긴다. 마찰할 때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가 있고, 전자를 쉽게 얻는 물체가 있다. 예를 들면, 털가죽 종류는 전자를 쉽게 잃고, 플라스틱 종류는 전자를 쉽게 얻는다. 우리 몸은 전자를 잘 잃는 편이므로 전자를 쉽게 얻는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자주 입는 사람은 정전기와 친할 수밖에 없다.

정전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한 대표적인 제품이다.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해 토너의 잉크 가루를 종이에 붙인다. 식품을 포장할 때 쓰는 랩이 그릇에 잘 달라붙는 것도 정전기 때문이다.

- 김정훈,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은?」-

1) 전하: 물체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양.

20.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가 잘 생긴다.
- ② 마찰에 의해 정전기를 줄일 수 있다.
- ③ 정전기는 포장용 랩이 그릇에 붙지 않게 한다.
- ④ 마찰할 때 털가죽 종류는 전자를 쉽게 잃는다.

21. ㉠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쓰인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계는 태엽, 초침, 분침, 시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요구르트, 된장, 치즈는 발효 식품의 예로 들 수 있다.
- ③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되어 해수면이 상승한다.
- ④ 마술이란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장치 등을 써서 불가사의한 일을 해 보이는 것을 말한다.

22. 밑줄 친 부분이 ㉡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그녀는 이국적으로 생겼다.
- ② 비가 와서 무지개가 생겼다.
- ③ 은밀히 한 일이 발각되게 생겼다.
- ④ 그 약은 맛있는 사탕처럼 생겼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우리 조상들이 겨울철에 저장한 얼음을 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비밀은 석빙고에 있다.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은 냉각과 저온 ㉠ 유지의 두 단계로 나뉜다. 얼음을 넣기 전에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얼음을 넣은 뒤 7~8개월 동안 내부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는 우선 겨울에 석빙고의 내부를 냉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경주 석빙고의 겨울철 내부 온도는 평균 영상 3.9도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지하실 내부 평균 온도가 영상 15도 안팎이니 석빙고 내부가 얼마나 차가운지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석빙고 ㉡ 내부를 냉각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석빙고 출입문 옆에 세로로 튀어나온 ‘날개벽’에 숨어 있다. 겨울에 부는 찬 바람은 날개벽에 부딪히면서 소용돌이로 변한다. 이 소용돌이는 추진력이 있어 힘차게 석빙고 내부 깊은 곳까지 밀고 들어가게 되고, 석빙고 내부는 이렇게 ㉢ 냉각이 된다.

두 번째 단계는 2월 말 무렵 얼음을 저장하고 나서 7~8개월 동안 석빙고 내부를 저온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저장한 얼음은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도 녹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여름에도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석빙고의 절묘한 천장 구조에 있다. 석빙고의 천장은 1~2미터 ㉣ 간격을 두고 나란히 배치된 4~5개의 아치형 구조물로 되어 있다. 각각의 아치 사이에는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는데, 이를 ‘에어 포켓’이라고 한다. 얼음이 저장된 후 조금씩 더워진 내부 공기가 위로 뜨면 그 공기는 에어 포켓에 갇혀 아래로는 내려올 수 없게 된다. 이곳에 갇힌 더운 공기는 에어 포켓 위쪽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밖으로 배출된다. 이렇게 해서 석빙고 내부는 한여름에도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 이광표, 「조상의 슬기가 낳은 석빙고의 비밀」-

23.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을 통해 중심 화제를 검증하고 있다.
- ② 중심 화제의 원리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통계 자료를 통해 중심 화제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2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얼음 저장은 석빙고 내부를 냉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 ② 석빙고의 겨울철 내부 온도는 일반적인 건물의 지하실 내부 평균 온도보다 낮다.
- ③ 석빙고 내부의 ‘날개벽’은 더운 공기를 위로 뜨게 한다.
- ④ ‘에어 포켓’ 위쪽에 설치된 환기구는 내부를 저온 상태로 유지하는 장치이다.

2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감.
- ② ㉡: 안쪽의 부분.
- ③ ㉢: 식어서 차게 됨.
- ④ ㉣: 공간적으로 떨어진 사이.